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다-레볼루션'을 주제로 오는 10월31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현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지난 1일 동시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목비엔날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중이다.

# 문화행사도 한가위만 같아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다-레볼루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감성과 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디자인과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부터 AI, 메타버스 등 최첨단의 기술이 디자인과 어떻게 조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지 펼쳐보인 것이다.

주제관에서 만나는 디지털아트와 안다 바르셀로나의 협업 작품 '색에서 영원까지'는 4000여 종의 꽃송이로 만들어진 화사한 꽃달팽이 인상적이며 '21개의 빛'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만나는 색션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또 바다 쓰레기로 제작한 김상연의 '우주를 영유하는 고래'는 환경을 생각하게 하며 자신의 엄마를 모델링해 얼굴을 제작하고 표정을 통해 인간의 표정을 학습하게 한 노진아 작가의 '나의 기계 엄마', 흥보대사인 조수미의 공연을 만나는 홀로그램 극장, 아날로그적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전익관의 '자연을 찾아가는 캄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밖에 국제관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업체 몰스킨, 레게음악의 창시자 밥 말리 등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물들은 흥미롭다. 직접 스탬프를 찍어보고, 레코드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즐거기' 딱 좋은 색션이다. 또 NC소프트, 기아, 포르쉐코리아 등 기업들이 참여한 전시공간도 흥미를 자아낸다.

관람객은 1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당 300명을 원

칙으로 '큐피커'를 통해 작품해설을 들을 수 있다. '큐피커'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목포문화회관, 운림산방 등 목포·진도 6개 주제관을 비롯해 광주·여수 등 4개 도시에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15개 국가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수목부채-머그컵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아트페어, 아트마켓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춧돌이 코로나 19를 대비해 구축한 온라인 전시관을 방문, 수목의 매력에 빠진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1일 개막 후 현재까지 5만 8000명이 다녀간 온라인 미술관과 온라인 영상관 등에서는 VR전시, 수목영상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8일부터 22일까지(추석 당일 21일 휴관) '2021년 한가위 우리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광박에 어서오제뎌'는 사전예약하고 관람하면 특별전 연계 '모모부인&두드장군 페이퍼토이' 체험키트를 선착순 제공한다.

'문(Moon)화제를 찾아줘! Feat.달랑'은 전시실에 전시된 '보름달을 담은 문화제'를 찾고, '달(항아리)빙' 인종상과 해시태그를 SNS에 업로드하면 선착순 문화상품을 증정한다. '달달한 인생샷'(22일)은 박물관 정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오픈-포토부스다. (회차 당 30명)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가족뮤지컬 '리틀뮤지션'(19일-22일)도 관람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연휴 시작일(18일)과 마지막 날(22일),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한다.

18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전문예술법인 국악중심 연의가(歌)·타(打)·무(舞)·악(樂)이 어우러진 연희·무용무대 '광주의 풍류, 전통 춤-판'이 펼쳐진다. 전문예술법인(사)국악중심 연은 전통과 다양한 장르 결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이날 공연에는 춤에 김나영, 박선심, 이소영, 양수경, 김신애 등이 출연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낮 12시 30분 서석당에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4호 필장 문상호의 작품 전시가 진행되며 옛 선조들이 즐기던 한가위 세시풍속과 전시 작품이야기가 펼쳐진다. 이후 너털마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를 즐길 수 있는 '한가위-줄놀이' 공연이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한가위우리문화한마당  
전통문화관 '전통 춤-판'  
온·오프라인 공연·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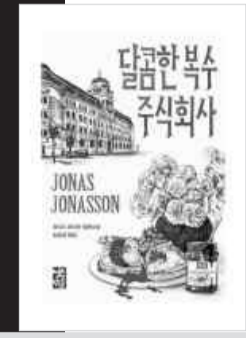


'국악중심 연'의 '광주의 풍류, 전통 춤-판' 공연은 오는 18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 추석 연휴 꿀독서

이번 연휴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연휴에 읽을 만한 국내외 베스트셀러 작가 5명의 장편을 각각 1권씩 추천한다.

### ▲달콤한 복수 추식회사 요나스 요나스 지음 임호경 옮김



'장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풍자소설이자 유머소설. 작가 특유의 문체와 맛깔을 살린 문장은 독자들로부터 하야금 역시 요나손이라는 감탄을 하게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빅토르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미술 품 거재인이다.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다. 나아가 창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케빈을 죽이려고 케냐 사바나에 데리고 가는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자행한다. 소설의 전편에 흐르는 기조는 '복수'로, 작가는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구에게 복수 계획을 짜주다가 이번 작품을 떠올렸다고 한다. <열린책들·1만8800원>

### ▲스카이라이트(주제 사라마구 지음, 김승욱 옮김)



'넌 먼 자들의 도시'의 가장 주제 사라마구의 사후 유일한 유고작이다. 때는 1952년 포르투갈 리스본,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 인간됨을 쓰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구두장이 실베스트르와 마리아나 부부는 반방에 세입자를 들이기로 결정한다. 옆집에는 권태기에 젖은 카르멘과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에밀리우 폰세카 부부, 여섯 살짜리 아들 엔리키뇨가 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분노를 직접으로 삼고 패셔, 셰익스피어, 에사 드 케이로스, 디드로, 베토벤을 즐겨친 친구 삼아 임대 아파트 주민들로 이루어진 소우주를 주목한다. <해남·1만7500원>

### ▲광덕산 딱새 죽이기(김주영 지음)



선 굵은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그려왔던 작가 김주영이 지난 2017년 출간한 '뿔뿔의 생' 이후 4년 만에 펴낸 장편. 주인공 복길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체력을 익혀나간다. 제2금융권에 근무하며 미수금을 받아내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일을 그만 둔 뒤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노숙자가 돼 서울 거리를 헤맨다. 어느 날 그는 곱속 귀신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복길이 금융업에서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변영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일이 얽힌다. <문학동네·1만4500원>

### ▲개(김훈 지음)



작가 김훈이 지난 2005년 출간한 소설 '개'를 고쳐 출간한 작품으로 이야기 뼈대는 유지하면서 내용은 상당 부분 고쳤다. 소설의 주인공은 진돗개 '보리'. 댐 건설로 수몰을 앞두고 주민들이 떠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태어난 수컷 보리는 짝미가 시절 얼마 품에서 파스하고 편안한 날을 보낸다. 그러나 보리에게는 태어날 때 다쳐 짝미 경쟁에서 뒤쳐진 만형의 죽음이 겹쳐진다. 본능에 가까운 엄마의 행동으로 만형은 죽지만 결국 엄마의 파스하고 축축한 목숨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다. <푸른숲·1만5000원>

### ▲다산의 사랑(정찬주 지음)



18년 유배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조선의 르네상스인', 다산 정약용. 그에게는 여러 수적이 있지만 자신을 극복한 인생을 산 학자로 규정된다. 이번 소설은 개인적인 면모에 집중한 작품으로 허구라는 입체적인 구성과 묘사가 풀어내는 필집함이 담겨 있다. 소설은 유배기와 해배 이후의 사건을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사건의 동력을 제공하는 이는 소설 남당대(홍일 묘)와 그녀가 낳은 딸 홍임이의 이야기 한 축이다. 또한 축은 강진에 유배 살면서 만난 남도 땅의 제자 18명의 이야기다. 남당네와 서너 홍임이, 다산을 스승으로 섬겼던 제자들은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한결미디어·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1타경 436	1	목포시 고하대로641-10, 201동 15층 1517호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59.85㎡	아파트	74,000,000	건물포함, 현황 점포및주막 이용
2021타경 982	1	무안군 상항읍 남악5로22번길20, 208동 2층 201호 [근형비치아파트] 84.85㎡	아파트	260,000,000	
2021타경 719	1	목포시 흥남동 553 182.8㎡ 대지 197,564,000원	대지	197,564,000	일괄매각, 제시외 외경계부담없이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 수목 포함
2020타경 6437	1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249 465㎡ [인접지 외경계부담없이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 수목 포함]	전	6,1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0타경 6833	1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538-2 108㎡	장중지	1,836,000	현황 '유지'
2020타경 7317	1	신안군 자은면 유원리 산109 7042㎡ [현고 지목상분묘소지]	임야	22,564,200	일괄매각
2020타경 54986	1	영암군 신북면 평정리 79-6 843㎡ [현황 '죽전지']	전	3,100,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0타경 54986	2	영암군 신북면 평정리 171-2 192㎡ [공유지 박종현 1/5지분전부, 토지일부인점지 [187, 188㎡]와 지적경계 불명현상, 인접지주택당장 및 출입문소재 여부 불명하며 별도 지적경계측량요]	대	691,200	지분매각, 현황 '일부전 및 주거니치', 매각제외터전이나 소재
2020타경 56388	1	신안군 암해면 분래리 산8-8 1400㎡ [공유지장우일 1/5지분전부, 공유지우선매수권 행사할, 지상소재수목, 관상수]매각포함]	임야	8,579,000	지분매각
2021타경 92	1	무안군 정계면 월선리 1011 1835㎡ [공유지 이영금 1110/9990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묘지인근조경수매각제외]	전	3,466,130	지분매각, 일부부요수기소재
2021타경 50066	1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산47 8.826㎡	임야	15,004,200	
	2	동소 산56-1 1,091㎡	임야	2,400,200	
	3	동소 산56-3 6,149㎡	임야	13,527,800	
2021타경 50301	1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218 274㎡	대	1,9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255 407㎡	답	2,849,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257 218㎡	전	1,52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산97-1 2579㎡ [현황 '임야 및 일부부'포함] [문건번호: 육산소재 '동신사지극성설비 [gout, kt, sk] 매각제외]	임야	4,126,400	
2020타경 7454	1	목포시 옥암동 1230-3 693.1㎡ 대지 2,546,518,850원	대	2,546,518,8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부속건물 및 반박목욕장 [기계실] 현황 '지하층'
2021타경 634	1	목포시 자유로134번길34, 상가동 2층 11호 [산정동, 황제전지] 27.5㎡	세탁소	16,000,000	

● 최고권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 조건

1. 특별매각 목적지적사항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권부동산인 매각물건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물건에 대한 매수신청비용으로 인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매수신청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3.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4.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5.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6.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7. 매각물건의 면적은 400㎡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수부담금의 미보유로 인하여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⑦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⑧ 매각물건의 면적은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1.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